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송 영 / 찬 양 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9.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1-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69장
- 대표기도 / (1부) 이기숙 집사 (2부) 이상혁 장로
- 헌금봉헌 / 51장 (1절)
- 성경봉독 / 열왕기하 2:8~14
-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 말 씀 / **“엘리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Where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 전종남 목사

- 찬 송 / 391장
-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노래 / 620장 (1절)
-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218장, 220장 기 도 / 강현주 권사
- 성경봉독 / 히브리서 13:1~6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 말 씀 /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 전종남 목사
 (Let brotherly love continue.)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505장, 325장
-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4:6~16
- 말 씀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Let Us Be Good Servants of Christ Jesus!) / 전종남 목사

마태복음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윤진태 안수집사	윤결태 장로	김상금 권사

예배 위원

3월	1부	2부
안내	문미경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헌금	강현주	양락석 김영화 우말순 전복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명순 김상영(박용분) 김성태(김득복) 김신영 김춘에 김형문(신승희) 유경순 유남순 윤결태(김연주) 윤주연 윤진태(이기숙) 채형국(박광연)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홍종덕 황하연 무명1 3여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상영(박용분) 김선정 김성태(김득복)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김춘에 김형문(신승희) 문미경 문상필 심상현 엄상희 유경순 유남순 유병용(황하연) 윤결태(김연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채형국(박광연)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홍종덕 홍우표(윤명란) *출산감사: 김세호(봉연주) *합격감사: 유진원(유예원)
선교헌금	박용분 유경순 윤결태(김연주) 이상혁(송미숙)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2여 3여
구제헌금	최환철(이동순)
주일헌금	김영덕A *부서헌금: 유초-중고

환난 중에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시3:1~8)

전 종 남 목사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린 기도의 찬양시입니다.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여.”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환난 중에도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1~2절).

다윗은 대적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심을 확신합시다(3~6절).

다윗은 3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방패가 적군의 공격을 막아 주듯이, 하나님은 사방에서 오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평안히 누워 잠을 자고 깰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기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셋째,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7~8절).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압살롬을 이기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오늘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